

# ‘서울-지방’ ‘인문-자연’ 대학, 취업률 격차 최저수준 기록

&lt;5.2%p&gt;

&lt;3.4%p&gt;

지난해 공시기준 분석 결과  
서울-지방, 최근 6년 새 최저  
인문-자연, 10년 새 최저 수준  
전년비 취업 어려워진 영향

서울과 지방, 인문과 자연계열 간 대학 취업률 격차가 최근 10년 새 가장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졸업생 취업 환경은 전반적으로 더 어려워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취업을 하락이 격차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 최근 10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220개 대학(서울 43개 대학·경인 41개 대학·지방 136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공시 기준 서울권과 지방권 취업률 격차가 5.2%p로 2020년 이후 6년 새 최저 수준까지 좁혀졌다. 분석 대상은 사이버대·방송통신대·의대·산업체 위탁 및 계약학과 등을 제외한 순수 일반대(일반학과) 기준이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시스

연도별로 보면 서울-지방 취업률 격차는 ▲2020년 6.4%p ▲2021년 7.5%p ▲2022년 7.2%p ▲2023년 6.1%p ▲2024년 5.9%p ▲2025년 5.2%p 등으로 축소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2025년 공시 기준, 권역별 평균 취업

률은 서울권 65.1%, 경인권 64.4%, 지방권 59.9%였다. 지방권을 권역별로 나누면 충청권 44개 대학이 62.6%로 가장 높고, 강원권 12개 대학 60.6%, 제주권 2개 대학 59.5%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 간 격차도 축소됐다. 2025년 인

문계열 취업률은 59.9%, 자연계열은 63.3%로 격차가 3.4%p에 그쳐 최근 10년 새 최저치로 좁혀졌다. 인문·자연 간 취업률 격차는 ▲2016년 6.0%p ▲2017년 5.4%p ▲2018년 6.6%p ▲2019년 6.9%p ▲2020년 6.3%p ▲2021년 6.5%p ▲2022년 5.1%p ▲2023년 6.0%p ▲2024년 5.1%p ▲2025년 3.4%p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모두 자연계열 취업률이 인문계열보다 높게 형성됐다.

대학별로는 서울권 주요 10개 대학 가운데 인문계열에서 ▲서강대 73.4% ▲서울대 70.3% ▲고려대 69.4% ▲성균관대 68.9% ▲연세대 67.4% ▲한양대 66.6% ▲중앙대 65.9% ▲한국외대 65.0% ▲경희대 61.6% ▲이화여대 60.4%로, 대부분 대학이 60%대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자연계열에서는 ▲성균관대 74.0% ▲서강대 72.5% ▲한양대 72.1% ▲고려대 72.1% ▲중앙대 70.8% ▲서울대 68.2% ▲연세대 65.9% ▲경희대 64.9%

▲이화여대 63.3% ▲한국외대 61.1%로 나타났다.

지방권 주요 대학으로는 지거국 및 지방권 주요 사립대 가운데 인문계열 ▲제주대 61.1% ▲연세대(미래) 58.0% ▲충남대 56.5% ▲강원대 54.7% ▲고려대(세종) 54.6%가, 자연계열에 서는 ▲연세대(미래) 63.2% ▲부산대 63.0% ▲고려대(세종) 62.5% ▲충남대 62.2% ▲전북대 59.5%순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격차가 줄어든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서울·지방, 인문·자연 모두 취업이 전년 대비 어려워진 구도 속에서 격차가 축소됐고, 상대적으로 서울권과 자연계열에서 취업이 더 어려워진 흐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권 대학의 공공기관 취업의 무화 등 취업 관련 정책이 실제 취업 상황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서울·지방 간 격차는 추가로 줄어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393억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39.3만 가구에  
가구 당 10만원씩 난방비 지급

최근 서울시 기온이 영하 14℃까지 떨어지고 한반도 전역에도 강한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393억원을 지원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5만 가구,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5000 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회원,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3만8000 가구까지 총 39만 300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한다.

시는 보편적 지원에 방점을 두고,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 없이 수급 자격 보유 여부만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특히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연일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일대 한강에 유빙이 떠다니고 있다.

/뉴스시스

대상 가구를 확인한 뒤 가구당 대표 계좌에 난방비를 입금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늦어도 2월 둘째 주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계좌 미등록자, 압류방지 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으나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실제 느껴지는 물가 상승률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한국도시가스협회 통계월보에 따르면 가구당 난방비는 2024년 1월 9만8825원에서 지난해 1월 10만6269원으로 올라,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추운 겨울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윤종장 복지실장은 “지난 12월에 내린 첫눈이 폭설로 기록될 만큼 최근의 기후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은 고물가, 경기침체까지 겹쳐 한파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번 난방비 지원이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감사원 “고양시청사 이전, 위법성 없어”

백석업무빌딩 활용 등 법적논란 마무리

고양시 시청사 이전을 둘러싸고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 5건이 모두 위법사항이 없거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종결됐다.

고양시는 지난 23일 감사원이 시의회가 지난해 9월 제출한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전항목 종결 처리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청사 이전과 백석업무빌딩 활용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제297회 임시회를 통해 민선 8기 시정에서 추진된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사안은 이전 발표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의 조기 종결, 소송 관련 가압류 해제 이후 근저당 설정, 기

존 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의 적정성,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등 총 5개 항목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통보하며, 이전 발표 절차와 기부채납 이행 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과 관련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또한 시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가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이 법적 하자가 없거나 감사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고양시는 이번 결정이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백석업무빌딩 부서 재배치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데 이은 후속 결과로,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행정 전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경기 킬처패스, 2.5만 → 6만원 한도 상향

지원 분야에 ‘도서’ 추가

경기도가 ‘경기 킬처패스’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를 기존 2만5000원에서 최대 6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분야에 ‘도서’를 새롭게 추가한다. 오는 26일부터는 지역 제한 없이 CGV·롯데시네마, 교보문고 등 온라인 제휴처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경기 킬처패스는 영화·공연·전시·스포츠·숙박·액티비티·도서 등 다양한 문

화 콘텐츠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문화소비쿠폰 사업이다.

개편에 따라 숙박은 3만원 할인 쿠폰 1종, 공연은 8000원·2만원 쿠폰 2종, 영화는 6000원·1만원 쿠폰 2종이 제공된다. 전시·스포츠·액티비티·도서 분야에는 각각 1만원 쿠폰이 지원된다. 쿠폰은 실제 결제 금액에 맞춰 선택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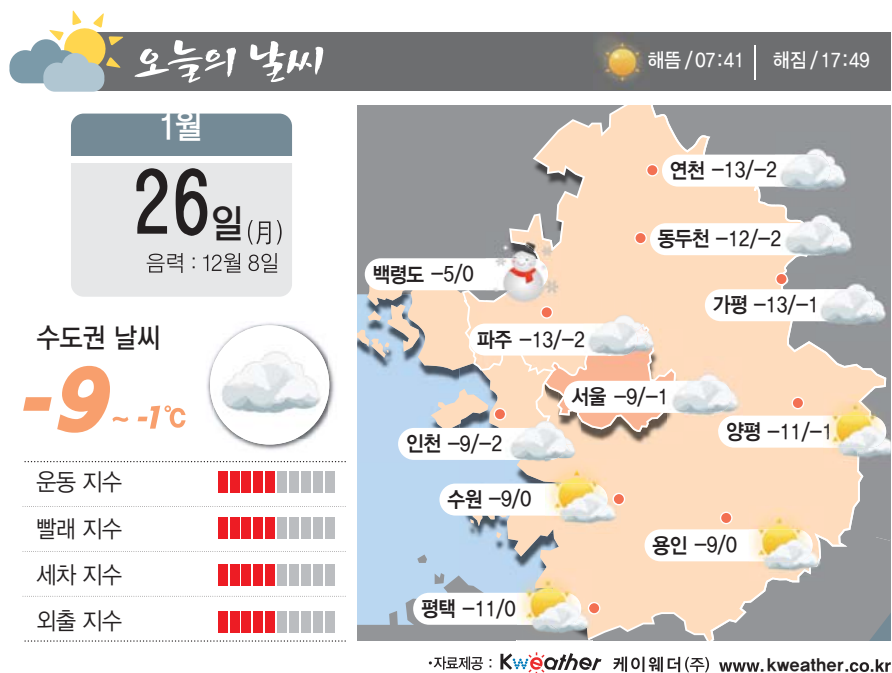
지원 분야는 기존 6개에서 도서를 포함한 7개로 확대됐으며, 사용처도 도내

시설 중심에서 전국 단위 온라인 제휴처까지 넓어졌다. 영화는 CGV·롯데시네마, 공연·전시는 티켓링크, 숙박·액티비티는 여기어때, 도서는 교보문고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킬처패스 쿠폰은 일일 발행 방식으로 1인당 하루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발급 후 다음 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용 앱에서는 제휴사별 문화 정보와 추천 콘텐츠도 제공된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개편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여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미니애폴리스 시에서 연방 이민 단속원들이 또 남성 1명 사살  
▲ 트럼프 “캐나다, 중국과 협정 체결 시 모든 상품에 100% 관세”

▲ “美·EU 전후 우크라 재건 위해 1163조원 투자 유치 계획”  
▲ 트럼프 “마두로 체포 때 新 무기 ‘디스컴버블레이터’로 적 무력화”



▲ “이란 시위 관련 사망자 5000명 넘어”  
▲ 美·러·우크라 3자 회담 종료…“미해결 요소 논의”  
/사진 뉴스시스